

만화일기에 비친 내밀한 개인사와 시대의 풍경

영월책박물관 《옛날은 우습구나—송광용 만화일기 40년(전4권)》 펴내

최근 영월책박물관(관장 박대헌)에서 《옛날은 우습구나—송광용 만화일기 40년(전4권)》을 펴냈다. 이를 기념해 박물관 전시실에서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기획전도 연다. 이 책은 평생 만화가가 되기를 소망했던 송광용 씨(68)의 만화일기다. 송씨는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중학 1년 시절인 1952년부터 1992년 2월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 하지만 냉혹한 사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를 만화가의 길로 이끌어주지 못했다. 그의 일기 속에는 1934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광복 그리고 한국전쟁과 유신 체제 등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살아온 한 평범한 남자의 꿈과 현실 그리고 희망과 좌절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

송씨는 일곱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배다른 형제들과 부대끼며 살아간다. 종이 살 돈이 없어 때를 쓰다시피 해 아버지에게 1백환을 얻고, 학급비에 손을 대는 부분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런가 하면 수업시간



송광용 지음
영월책박물관/B5변형/200면 내외/전 50,000원

에 몰래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읽고,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미미1' '미미4' 등으로 표현한 대목에선 저절로 웃음이 배어난다. 일기 속에 종종 등장하는 시들은 만화가를 꿈꿨지만 문학에도 소질이 있었던 그의 재능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만화를 그려야 한다”며 마음을 다잡고, 《학원》 등의 잡지에 투고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꿈은 멀어져가고, 그는 평범한 공장근로자의 길을 걷게 된다.

책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됐다. 1권 《만화가와 곱구나》는 만화가로 꿈꾸던 청년기의 열정과 사랑을, 2권 《코리아 훈련병》은 군대시절을, 3권 《가시밭에 쓰러지다》는 사회생활담을 담았다. 4권 《옛날은 우습구나—재미있는 글보기》는 만화일기 가운데 특히 중요하거나 재미있는 부분을 가려 뽑은 것이다.

송씨는 만화일기를 갱지를 반으로 접어 A4크기로 직접 재본했다. 표지에 일련번호와 각권의 표제를 붙이고 표지그림을 그려 넣는 등 만화책의 형식에 따라 일기를 엮어왔다. 이렇게 묶인 책이 모두 131권이 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를 '만화가'로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

— 박옥순 기자

비서구권 문학이 국내에 상륙한 것은 불과 20년 안팎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 담론을 등에 업고 동구권 문예이론, 남미 환상문학, 아프리카 문학, 여성문학, 게이문학 등이 꽤 많이 번역돼 나왔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까지 읽히는 것은 거장들의 극히 일부 작품에 불과하다.

평론가들이 작품 감상보다는 이론의 전거 텍스트로 이용하고, 대부분 단발성에 그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번에 열림원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이삭줍기> 시리즈는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이 기획물은 작품

성은 뛰어나지만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제3세계 문학, 문혀서 빛을 보지 못한 서구 문학, 동양 고전문학 등을 발굴해 1백여권 정도 번역소개할 예정이다. 고급한 비주류 문학의 본격적인 읽기를 통해 서구에 편중된 우리의 문학적 교양에 균형 감각을 찾아주겠다는 것. 서울대 영문과 장경렬 교수, 철학과 허남진 교수, 전문번역가 김석희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다.

1차분으로 《야자열매술꾼》(아모스 투투올라, 장경렬), 《아돌프》(벵자맹 콩스탕, 김석희), 《그림자를 판 사나이》(아델베르트 폰 샤미소, 최문규) 등이 출간됐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가산 카나파니, 윤희

제3세계 및 비주류 장르 문학 본격적으로 읽는다

<이삭줍기> 시리즈 출간돼



열림원/A5변형/192면 내외/각 6500원

환), 《벌거벗은 해》(보리스 필냐크, 석영중)도 곧 나올 예정이다.

《야자열매술꾼》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나이지리아 작가 투투올라의 출세작으로 아프리카 요루바족의 전승설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야자열매술을 즐기는 주인공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자신의 술시중꾼을 찾아 죽은 자의 땅으로 간다는 이야기다. 어색한 영어, 늘어지는 문체, 플롯이 겹치는 것 등은 장르적 관점에서 볼 때 낙제지만, 그 때문에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감수성과 친진한 상상력이 도드라진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18세기 프랑스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콩스탕의 자전적 소설 《아돌프》는 연애 심리소설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작품이고, 프랑스 귀족 출신으로 혁명 당시 재산을 몰수당하고 독일로 쫓겨난 샤미소의 《그림자를 판 사나이》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색채의 작품이다. —강성민 기자